

제 233호 대표전화 043)234-0840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청주복지재단이 2015년부터 시작한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 사업' 3년 사업을 올해 마무리 짓고 8월 28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기반 닦았다

청주복지재단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사업 마무리

청주복지재단이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 사업' 3년 사업을 마무리 짓고 8월 28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사업에 참여한 5개 지원 단과 10개 사업단 컨소시엄 관계자,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해 지난 3년의 사업추진 과정과 변화과정,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사업단으로 참여했던 그린살바hor(미원면), 다운빌(복이면), 성보나의집(가덕면), 수정노인의집(내수읍), 청북아카데미(옥산면), 청주경노인복지관(화계동·문암동), 청주상당노인복지관 미원돌봄의집(미원면), 행복의집(연

도면), 협동원(내수읍), 휴먼케어(오창읍)에는 인증패가 전달됐다.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의 복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주복지재단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2015년 9월 시작했다.

농촌지역 노인요양시설·장애인생활시설 등에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등 소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10개 기관·시설이 사업에 동참했고 청주시·학계·민간 전문가로 자문단

을 구성해 사업추진을 도왔다.

1차년(2015. 9.~2016. 8.)에는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이후 2차년(2016. 9.~2017. 8.)에는 복지욕구에 따른 복지관 기능 적용, 3차년(2017. 9.~2018. 8.)에는 마을 소복지관 기능을 정착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3년 동안 각 사업단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여가프로그램·저소득 반찬지원·사례관리·이미용지원·나눔잔치·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900여회 제공했으며 1만6000여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사업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동참이 이어졌고 마을마다 자발적 '복지공동체'의 형태가 갖춰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준환 충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는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사업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자생적으로 시작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겠다는 자조력 향상에 기초해서 풀어나갔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며 "사업을 통해 장애인시설 등 기관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지역주민의 복지접근성 향상, 지역내 복지인프라 기능 향상 등의 질적 성과가 있다"고 총평했다.

이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 고용거버넌스 '일자리 72포럼' 세미나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충북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

충북도는 7일 청주S컨벤션에서 도내 일자리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명과 함께 지역의 일자리정책 방향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고용시장에 대한 우리도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충북연구원 김진덕 수석연구위원,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해진 고용전문관이 발표자로 나서고, 이어진 토론에는 일자리 72포럼 위원장 문장훈 충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홍양희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김동호 충북ICT산업협회장, 이양규 서원대 인재개발처장, 노대우 한국능률협회 연구원, 이종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역대 최악의 고용위기 속에서도 충북은 고용률 70.2%(전

국 3위), 실업률 2.5%(전국 3.7%)로 우수한 고용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악화되는 고용환경과 급변하는 고용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충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김진덕 수석연구위원은 성장 중심의 투자와 일자리 중심의 투자를 분리한 선택과 집중의 노력을 강조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재구조화, 새로운 고용형태 및 환경을 위한 충북형 노동 시스템 구축, 대학-미래 지역산업 연계한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등 충북의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해진 고용전문관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과 이와 연계한 지역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타 시도의 일자리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손수 적은 희망 총이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1회 충북재가노인복지대회 개최 성황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8월 20일 청주아트홀에서 1회 충북재가노인복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충북도 도의회의장, 청주시장을 비롯한 충북도내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19개 회원기관의 시설종사자 및 부양가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독거어르신 및 재가어르신, 자원봉사자 1000명이 참여해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스페 쌓는 충북청년 기(氣)-업(UP) 프로젝트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역량 강화 지원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충북청년 기(氣)-업(UP)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결과 50명 선발에 130명이 신청, 2.6:1의 경쟁률을 보여 청년들의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충북청년 기(氣)-업(UP) 프로젝트'는 일할 의욕이 높은 도내 만 19세이상 39세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지역기업 현장 일

경험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21일에는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채용 페스티벌을 개최, 도내 중소기업 30개소, 청년구직자 150여명이 참가하여 구인 구직 만남의 장을 갖고 현장면접 등을 실시하여 50명의 참여자를 선발했다.

선발된 참여자는 9월부터 지역기업에서 일경험(주 25시간 이내, 단력근무)을 시작하고, 사무보조, 조리 및 연희, 제품개발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직무 경험을 쌓는다.

3회 음성복지포럼 성료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3회 '음성복지포럼'이 5일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내 사회복지조직 간 협력 가능성이 있는 청년인력 양성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교통대 김창기 교수가 좌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우일 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무암시니어 김현숙 관장,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손영희 사무국장, 음성군노인복지관 임종훈 관장, 극동대학교 박보영 교수와 참석하여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전개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우일 단장

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 협력에서 협의회는 각종 사회복지·단체·시설 및 그 연합회가 관여하는 복지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기능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안병호 회장은 "이번 포럼은 최근 사회의 양극화 심화, 저출산 및 고령사회 도래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복지 전달체계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에 민간 차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구축하고 전달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이 되어 음성군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과거의 관 주도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민과 관의 매개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

2018. 10. 12(금) 11시 (음성 인삼축제 기간 중 진행)

음성군 금왕읍 응천서길 25

주 관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SSN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후 원 충청북도 음성군

영유아 행복 위한 육아 토크콘서트

영·유아 부모 50여 명… 조길형 시장과 즉문즉답 토크
맞벌이 정책·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요청… '열린 소통'

충주시가 8월 27일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충주'를 주제로 '부모가 물고, 시장이 답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토크콘서트는 조길형 시장이 '충주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행복한 시민이 만족하는 충주를 만드는 것'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 제10대 충주시장의 신규 사업이다.

이날 충주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는 육아정책에 관심 있는 부모 50여 명이 참여했다. 토크콘서트는 오카리나 연주에 이어 조길형 시장과 참석 부모들이 즉문즉답하는 방식으

로 진행됐다.

기존의 딱딱한 간담회 형식을 벗어나 격식에 얹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 위원장은 '아이가 수족구, 수두 같은 전염병으로 어린이집을 갈 수 없을 때와 방학이 제일 난감하다'며 맞벌이를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싱글맘들은 아동돌봄 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최근 어린이집 교사·아동학대사건 관련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조길형 시장은 '부모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 육아 현장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좋은 시간이 됐다'며, '맞벌이와 가정양육



조길형 충주시장이 8월 27일 충주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부모가 물고, 시장이 답하다'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모를 위해 아이돌봄을 확대하고 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육아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편안한 시간에 경제되지 않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그동안 아이 키우며 궁금했던 이야기를 시장님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충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아동청소년문화공간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워킹맘 간담회, 어린이집 교사 간담회 등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충주, 아동권리대변인 위촉·활동기관 지정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아동권리대변인을 위촉하고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했다고 8월 21일 밝혔다.

아동권리대변인은 아동의 권리 를 옹호하고 아동권리 피해사례 조사와 구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등의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박종업 변호사 와 신수진 행복한행동 대표, 고미숙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3명을 아동권리대변인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박종업 변호사는 아동권리 침해사례와 관련한 법적 자문, 신수진 대표는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아

동이 편안하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멘토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고미숙 센터장은 초기 사례 상담자 역할을 맡았다.

활동지원기관은 아동권리대변인의 활발한 활동을 돋는 역할을 하며,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선정됐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평소 1388청소년상담전화, 또래상담, 학교폭력예방사업, 청소년참여위원회, 아동권리교육 등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 아동권리대변인 운영에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 긴급복지지원 제도 운영

음성군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계지원을 포함한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등을 상황에 맞게 신속히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주소득자인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실직,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생계를 유지가 어려운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원 신청하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작년 11월 긴급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 확대로 더 많은 위기가 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단정 시 1개월 경과구정의 삭제, 부소득자의 휴·폐업 및 실직과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사유의 추가로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대상자 주거지 읍·면 복지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 받은 후 조사한 소득 및 재산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심사를 받고 지원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의 역량을 증진시켰다.

이 교육은 총 5회 진행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한 행복찾기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재테크(행복 숙의 귀찮은 것을 즐겨라) 등 강의 청중을 3분안에 집중시키는 3단 회법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정이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편집위원장 박상준 편집고문 겸주필 김춘길
(28583) 충북 충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043-234-0849
E-mail: cpcsw@chol.com **홈페이지:** www.cwir.or.kr

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의 일환으로, 방우경 강사의 대화기법

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인맥 형성에도 진도표가 필요하다. 한 번에 기억시키는 자기소개 방법, 청중을 3분안에 집중시키는 3단 회법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충주사회복지협의회, 역량강화 토크콘서트

사회복지법인 충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동모)는 6일 동부 창고 36관 빛내림홀에서 '소통과 공감을 통한 행복찾기'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충주시 민·관 사

인과 협력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충주시 민·관 사

<p

소외된 치매 노인들 위해 옥천 '방문형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사각지대 '제로'… 청성·청산 노인 직접 방문

충북 옥천군이 치매관리에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청성·청산 지역 주민을 위해 '방문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노인들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돋는다.

6일 옥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7000만 원을 들여 청성·청산 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등지의 쉼터공간을 활용해 찾

아가는 방문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

이 지역은 옥천읍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30km가량 떨어져 있어 전문적인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특히 옥천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27.0%(5만1723명 중 1만3954명) 이지만, 청성

면은 47.8%(2289명 중 1093명), 청산은 42.2%(3174명 중 1340명)에 이른다.

반면, 치매등록 환자 수는 전체 950명(65세 이상 노인의 58.8%)이지만, 청성은 5.1%(48명), 청산은 6.3%(60명)로 매우 낮다.

노인 비율에 비해 치매등록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치매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노인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문형 치매안심센터 운영 배경이다.

군 보건소는 지난달 6일 치매안심센터 운영 점검을 위해 옥천을 방문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방문형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원면 치매안심마을 시범 운영, 인지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와 효과성을 확인한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비 5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시책 효과 '톡톡'… 옥천보건소 '복지부장관 표창'

자살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군민 우울감 도내 '최저'

옥천군보건소가 전국 자체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자살예방관리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일 열린 2018년 자살예방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장'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선 선정한 전국 41개 보건소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보건정책 등을 엄격하게 심사한 것으로, 전국에서는 총 12개 보건소가 수상했다.

2014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옥천군민의 우울감 경험률은 12.6%로 전국(6.5%)과 충북 평균(9.0%)보다 월등히 높고, 세월호 참사로 슬픔

에 잠겨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1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군 보건소는 군민의 우울감 해소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도입,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군민의 우울감 경험률이 3.5%(전국 6.3, 충북 6.1)로 도내에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며 눈부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2015년에 군비 1천500만 원을 들여 우울증 환자 24명에게 우울증약제비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5천 만 원의 사업비로 323명까지 늘



옥천군 보건소가 자살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김재종(오른쪽 두번째) 군수와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고 있다.

려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울감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 고위험군 조기발견 검사 2천 717건과 고위험군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129회에 걸쳐 290명에게 제공 중이다.

2012년도 개소한 군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는 정신보건전문가

등 9명이 만성정신질환자 386명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영동 사회복지사들 한 자리에… “지역복지 최선 다합시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어울한마당… 유공자들 표창

영동군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4일 융도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 '11회 영동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종사자 어울한마당'이 성료됐다.

영동군사회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관내 사회복지사 및 시설 종사자, 지역주민 등 200

여명이 한데 어우러져 화합을 다졌다.

이날 1부에서는 사회복지 일선에서 복지 증진을 위해 현신해 온 유공자에 대한 군수 표창과 공로자에 대한 협회장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군수 표창은 오미희(유원대학

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준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은실(영동군청 생활지원과)에게, 공로패는 과요한(영동군사회복지시설연합회장), 정우진(충북·농아인협회 영동군지회장), 양순임(례인보우영동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에게 각각 수여됐다.

이어 2부는 사회복지종사자들

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한 어울한마당에서는 신백수 씨(영동군청 생활지원과)에게, 페니 대표가 진행하는 다행께 웃고 즐기는 레크레이션, 베스트드레서 선발전, 다행께 쟁일통, 캔들 세레마니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축하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가을밤의 날 만족취를 한껏 즐겼다.

영동군,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소화기 지원'

영동군이 앞서가는 재난예방 대책으로 군민의 안전과 행복 보장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화재 등 각종 안전사

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재난취약가구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군의 조처다.

군 자체 예산 4천 5백만원을 확보하고, 관내 재난취약가구 약 900가구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를 각 1개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영동군에 주소를 두며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정,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등이다.

영동군은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밤새도록 움직여 올해 4월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한 바 있다.

군은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제작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증평 이주여성들 “배움 통해 삶의 질 올라갔어요”

이주여성들 검정고시 합격

“안정적 정착 계기 되길”



제 2차 검정자격 시험에 합격한 수강생 9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격 시험에 응시해, 9명이 전체 학력으로 인해 자녀교육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번 과정 수강생 중 11명은 지난 8일 실시된 제2차 검정자

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는 2015년부터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초·중·고등 교육과정의 검정고시반을 운영해오고 있다.

보은, 민·관 손잡고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업그레이드'

노인·장애인복지관-농업경영인 청년회 업무협약

협약을 맺었다.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 박미선은 “지역의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어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보은군연합회 청년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불사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진천… 산후회복·양육 지원

건강관리사 파견…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들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완료 되어야 하며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 되고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예외지원 자격 증명서류와 신분증, 출산 및 출산예정일 증명서 등을 갖춰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함께하는 이웃사랑 실천’… 괴산군 사회복지시설 방문

충전군,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소화기 지원'

소자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물티슈·세제·휴지 등 생필품 위주의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사랑을 나눴다.

또한 이 군수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들을 만나 일일이 추석명절 안부인사를 전했다.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두루 살피며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상 이로점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군수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이 꼭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20일까지 각 부서별로 결연을 맺고 있는 관내 13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여 명절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최희연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장애인등급제 폐지·맞춤 지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관계부처 등 협력해 지원기준 지속적 확대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으로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저소득층 청소년에 월 40만원 생활 지원

정부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기존 파란사다리·교외근로 장학사업 확대

모 가정 학생 중 체육 우수 인재 1500명을 선발해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한번 대상으로 선정하면 상급 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장학사업도 확대된다.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장학사업'은 올해 800명에서 내년엔 1200명으로 확대된다.

대학생이 저소득 가정 초등·중·고등학생에게 멘토링을 하면 시간당 1만500원을 지급하는 '교외 근로 장학사업'도 올해 9000명 수준에서 내년엔 1만6000명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또래 중산층 자녀들이 누리는 교육을 받으며 정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처럼 보살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단녀 10명 중 9명 "경단녀 선택 후회"

벼룩시장구인구직이 경력단절 여성 6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89.6%가 '전업주부/경단녀'를 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단녀이자 전업주부인 김나정(41세)씨는 졸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10년 이상 쌓아온 경력을 포기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 자연스레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이다.

김 씨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쉽지 않았다"며 "집에만 있다 보니 직장인 친구들이 회사생활 풍靡를 할 때 부럽기도 하고 소외감도 든다"고 말했다.

전업주부/경단녀를 택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될 때는 '다시 일을 하고 싶은데 재취업이 쉽지 않을

그렇다면 이들의 경력이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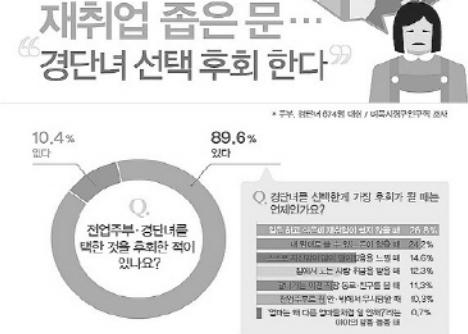
때(26.8%)를 1위로 꼽았다.

사회생활의 공백기를 거친 후 기존의 직업으로 복귀를 하는 것도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을 때(24.2%)'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으며 '스스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음을 느낄 때(14.6%)',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을 받을 때(12.3%)', '잘나가는 이전 직장 동료/친구를 볼 때(11.3%)',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집 안/밖에서 무시당할 때(10.3%)' 등 순이었다.

경력단절 후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아실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답변에 반영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경력이 단절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이유는 '육아(40.9%)'였다.

이어 '출산(22.8%)', '결혼(22%)', '자작적 선택(8.9%)', 가족의 권리로(3.3%)' 등의 순이었다.

증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200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등 본격적으로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예산도 777억원으로 전년비 73%로 크게 늘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현재 기준증위소득 80%에서 100%로 늘리면서 수혜를 받는 산모와 신생아 수가 3만7000명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가정양육과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올해보다 40개소 늘린다.

복지부·청년희망재단, 미취업 청년 일자리 제공

지역아동센터 연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협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청년희망재단(이사장 김유선)은 8월 23일 청년희망재단에서 2018 지역아동센터 연계형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지역아동센터 근무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고,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입소 아동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근무기회 및 활동급여(인건비)지원, 일·경험 및

이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회경험을 함양하고 실무경력을 증진 시키길 기대한다고 보건복지부와 청년희망재단 관계자들은 밝혔다.

특히,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업무 협약식에서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할 경험을 지원해줌과 동시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는 지역 청년들과 교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8 지역아동센터 연계형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에 지원을 회망하는 사람은 이르면 이번 달부터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http://yhf.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문의(1670-1907)하면 된다.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천명 증원

보건복지부, 저출산 대응 위해 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보조교사 확충과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 아동·보육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른 아동·보육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1.6%(1조3957억원) 증가한 7조8546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나선다.

내년에는 450개소 추가 확충을

큰 관련 예산은 9219억원으로 전년비 25.7%(1882억원) 증가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영유아 보육료가 들어난다.

관련 예산은 4.5%(1478억원) 증가한 3조4053억원이다. 올해 대비 0~2세 보육료 단가를 6.3%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 함께 돌봄의 경우 전년비 1390.6%(129억원) 급증한 13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인건비가 각각 1.8%, 2.3% 인상된다. 이에 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출산'이 30~40대는 '육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력단절 후 직장인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껴본 적 있나는 질문에 86.9%가 '있다'고 응답했다.

증증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

정부의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대책에 기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증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지원인 지원제도는 증증장애인에게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증증장애인에게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

도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증증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공단 전국 지사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무와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서비스 지원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지원인 예산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300여명 이상의 증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고용유지와 근로지원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부의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지원 대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업주 및 장애인 근로자는 국번없이 1588-1519으로 문의하시거나 9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I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I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 분	내 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글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비,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정화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I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충북자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I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I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I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I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 민 지 코디네이터

전 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치매·증풍 극복 실현 위한 화합의 하모니!’

충북노인종합복지관서
7일 ‘실버합창제’ 열어
어르신 건강한 삶 응원
치매 극복·화합의 자리

충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은 7일 치매·증풍 극복을 위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제4회 충청북도 치매·증풍극복 실버합창제’를 청주아트홀에서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금년에 4회째 개최된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청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이 각각 주최·주관하여 참가팀 400여명, 내빈 및 도민들을 포함하여 750여명이 함께하였다.

이번 행사는 특히 순위와 경쟁을 떠나 모두가 즐겁고 신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는 점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암시한다. 또한 특별테마공연 ‘치매타파댄스’를 충북노인종합복지관 실버아티리딩 어르신들과 학생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선보임으로써 한층 더 행사를 흥미롭게 이끌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 본 행사는 합창부문에 총 11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그 중 9팀은 시군구 노인복지관 소속으로 출전하였고, 2팀은 각각 증평군청과 청주용역문화의 집 소속으로 새롭게 이번 행사에



충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은 7일 치매·증풍 극복을 위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제4회 충청북도 치매·증풍극복 실버합창제’를 청주아트홀에서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얼굴을 비추었다.

시상은 본상 6개 부문에 각각 청주상당노인복지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이 감동상,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제천명락노인종합복지관이 품격상, 청주가정노인복지관과 영동군노인복지관이 응원상을, 청주흥덕문화의 집, 진천군노인복지관이 화합상, 증평군청, 청주가경노인복지관 화합상, 영동

군노인복지관, 단양노인복지관이 예술상, 충북노인종합복지관이 인기상을 수상하여 트로피와 시상금이 전달되었다. 또한 특별상으로는 각각 청주가정노인복지관과 영동군노인복지관이 응원상을, 청주흥덕문화의 집 백합합창단이 대상을 수상하여 충청북도지사상

장과 꽃다발을 수여받았다. 한편, 부대행사로는 충북광역치매센터와 서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충북급언지원센터가 함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식개선 설문조사와, 치매관련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실버합창제가 더욱 다채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

2018 충북도 자활기업 창업 준비과정 실시

자활사업단 창업진단·마케팅 전략·운영 자립도 향상 등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센터장 정률동)와 한국자활연수원(원장 이시우)이 5일부터 6일까지 한국자활연수원(충주시 안림동)에서 충북지역 자활종사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기업 창업 준비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자활기업의 기초 과정을 이해하고 자활기업 창업을 미리 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활기업 창업교육의 기초과정으로 창업 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사전교육으로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와 한국자활연수원의 협동조합의 오승주 대표 ‘자활사

업단 창업진단과 전략, 마케팅 전략’, 한국자활기업협회 박기홍 사무국장 ‘운영자립도 향상 전략과 모의창업’으로 진행되었다.

자활사업단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 수익성을 진단한 후 운영자립도 향상 방법을 파악하고, 모의창업을 통해 구성원간의 역할분장 및 창업 필수 준비항목을 정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충북자활기업은 현재 55개소(사회적기업 포함)이며, 충북의 사회적경제를 이끌고 있다.

자 운영 업무, 1388상담전화 운영 등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탁기관 공모로 서청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게 됐다”며 “센터 개소를 계기로 청소년 상담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자원과 적극적인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들의 보금자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아동복지협회, 전국 꿈나무체육대회 제2회

탁구 초등부 우승·배드민턴 초등부 준우승 등 ‘쾌거’

충북아동복지협회(회장 이정순) 꿈나무선수단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고창군립체육관, 고창생활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제2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체육대회에 참가해 탁구 초등부선수단이 우승을 하였으며, 배드민턴 초등부선수단 준우승, 중등부 3위를 하였다.

또한, 축구 중등부 선수단은 8강 진출의 쾌거를 올렸다.

이번 제2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체육대회는 전국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체력증진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체육 꿈나무의 조기 발견 및 육성을 위해 한국아

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온 여름 꾸준히 훈련에 임하고 노력하여 멋진 성적을 거둔 충북 선수단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라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격려하였다.

선수들 또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기량을 강하고 닦아 더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고 결의를 다짐했다.

한편 본 대회 출전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아동들의 체력증진 및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아동복지지원위원회, 신성축구교실 등에서 아동들이 맘껏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충북다문화가족지원 관계기관 합동연수 개최

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호율적 지원 운영 방안 모색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2018년 충북다문화가족지원 관계기관 합동연수’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실무자,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간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일가정양립 및 성인자 감수성 향상’을 주제로 대전 여성정책지네트워크 임정규 대표의 특강을 시작으로, 이틀간 진행된 연수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다문화자원 유관기관 및 센터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를 통해 협후 사업을 모색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 및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가족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충청북도는 이번연수를 통해 도내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 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함께하는 도민, 일등 경제 충북 실현을 통해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진로토크콘서트 ‘꿈꾸는 아카데미’ 성황

‘공부의 신’ 강성태 특강 등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성호)에서는 15일 충청북도 진로교육원에서 월드비전 꿈꾸는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월드비전은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회망을 잊지 않고 꿈을 찾아 도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돋는 ‘꿈꾸는 아이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꿈꾸는 아이들’은 꿈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꿈 디자이너’ 그리고 정한 꿈을 이루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 날개클럽’으로 나뉜다.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은 ‘꿈 디자이너’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전문직업인 및 연사와의 만남을 통해 고민을 나누고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는 ‘꿈꾸는 아카데미’를 올해 첫 실시하였다.

정석문 아나운서(SBS방송국), 김태윤 선임연구원(한국과학창의재단), 김미란 강사(주)쉼표와 느낌표 대표이사) 총 다섯 명의 멘토가 청소년들과 만나 꿈과 진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 조언을 해주었다.



꿈꾸는 아카데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서청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식 열렸다

7월 공모서 유스투게더 선정… 양질의 서비스 기대

청주시가 8월 30일 서청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서청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주시·청원군 통합으로 청원군센터의 명칭을 변경해 그동

안 청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시설로, 상담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사)유스투게더가 선정돼 앞으로 3년간 위탁업무를 맡는다.

자 운영 업무, 1388상담전화 운영 등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탁기관 공모로 서청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게 됐다”며 “센터 개소를 계기로 청소년 상담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자원과 적극적인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들의 보금자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부 특강은 ‘공부의 신 강성태’

가 꿈을 이루는 단 하나의 습관이

란 주제로 진행된다.

중, 고등학생 청소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꿈꾸는 아카데미는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편구하면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시간이었다.

이후로도 매년 멘토들과 다양 한 주제로 청소년들을 찾아갈 예정인 ‘월드비전 꿈꾸는 아카데미’, 앞으로 청소년들의 미래 희망에 대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봉사분야 : 어르신 말벗, 상담, 가사지원, 주거환경개선



학교법인
충청학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 043 265 5305 (청주)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 043 653 5025 (제천)

칼럼 Column



나동석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사의 자세

그만두었다.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은 다른 직업에 몰두하다가 면복하여 사회복지학과에 다시 재입학했었다.

이렇듯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는 일부 학생들은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이고 특히 미래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직업군의 한 가지로 각광받는다고 지원하였을 것이다. 또한 부모님의 권유나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결정되거나 자신이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봉사경험을 통해서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입학에서는 많은 고민을 한다. 전망있으면서도 도와주면 된다고 가볍게 여겼던 사회복지학과에서의 교과과정을 접하는 과정에서 깊고도 넓은 학과로 파악하고 나서는 방향하기도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나로선 사회복지학과를 전망있어서 선택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세를 갖출 때 사회복지사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는 첫째,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따뜻한 마음은 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우며 의기소침한 상태를 높여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둘째, 객관적이

며 진솔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대상자가 언급하는 의견에 대하여 항상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고 진지하고 솔직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몸과 마음이 일치된 조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때문에 조화로운 관계로 엄두에 두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대상자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감정이 입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대상자의 감정상태를 우선적으로 들어줌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회복지사에 마음의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와 친화적 관계를 이루게 되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며 나아가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관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밑바탕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인격적 특성을 갖춘다면 사회복지사로 선택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부족할 때 사회복지사를 선택한다면 훈련받을 것을 강조한다. 요즘 들어 사회복지학과의 전망에 대해서 많은 매체에서 살아남는 직업의 하나라고 말한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등장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직업군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요구하는 직업은 감소되고 상응하여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전에는 동시에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미래에도 남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하는 질문이 나오다.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역할로 초기에는 원조전문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리져 역량강화전문직으로 보강되어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질지 궁금하다.

미래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예측해 본다면 대상자 자신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역기능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와 함께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전망있는 직업으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해 전에 사회복지학과의 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검사를 하면서 내가 한 말은 “검사결과를 보니 학생은 사회복지사로서 뛰어난”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 이 학생은 군대를 갔다가 3학년 학생이었다.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니 자신이 스스로 탐색해 보기로 결정한 것이다. 학생은 사회복지사보다는 전망있다고 회자되는 다른 직업을 택한다고 아버지와 상의한 후 결국에는 학교를

현장의 목소리



문호선

충북 청원지역자활센터 실장

지역자활센터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알지 못했다. 그렇게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한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건 복지인가 고용인가이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업종(제조, 가공, 서비스 등)에 일을 경험하고 동시에 창업을 도모하고 새로운 업종의 창업아이템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고용(취·창업)전문가에서도 일해야 한다.

나는 세무와 노무에 대해 배웠고 세차, 애호박재배, 절임배추작업, 커피제조법 등의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일해야만 했다.

어느날은 농사꾼이 되고, 어느날은 바리스타가, 어느날은 회계사가, 어느날은 복지사가 되어 있다. 내가 겪는 일을 대해서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느끼기도 어렵고 내가 한 일이 맞는지 조차 의문이 드는 날이 많았다.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업종의 일을 경험해보는 것은 행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업종을 배우고 경험하며 짧은 시간안에 성과(취·창업)를 내야 한다라는 것은 종사자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근래 우리센터의 일은 아니지만 다른 자활센터 직원이 새벽에 출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유는 자활근로사업단 중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정

해진 새벽시간대의 참여주민이 무단결근을 하였고 못하겠다고 하여 그 부담을 종사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활센터 직원들은 대부분 종사자의 상황이 안타까우면서 참여주민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

자활근로참여주민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 있는 사람들이기에 근로를 시킨다는 거 자체에 대한 동기부여도 쉽지 않으며 고용이 아닌 복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참여주민을 통제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위 사례는 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새벽근무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은 과연 탈없이 성실히 새벽근무라고 종사자는 여전히 부담감은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며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창업으로 이끌어 가는 경우도 있다.

우리센터는 올해 8월 웨딩반찬·뷔페·도시락)이 ‘맛을담

은산들찬협동조합’자활기업으로 창업하였다. 참여주민분들이 성실히 근로하며 교육과 컨설팅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뤄낸 결과인 것이다.

자활근로사업단 담당 종사자로서 아픔을 이겨내고 현재를 인정하며 조급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의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많은 참여주민들을 격려하며 지지한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보람을 찾기도 한다. 우리센터의 생명은 ‘존중과 신뢰로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희망을 품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로 돋돕는다’이다.

지역사회에 저소득층들이 희망을 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며 스스로를 회복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만들어 지길 기대해 본다.

기고를 받습니다.

- 사회복지 기고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 활동화길 원하시는 분은 전화(043-234-0840~2) 또는 이메일(cpcsw@chol.com)로 문의 바랍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홈닥터 사업 안내

법률홈닥터제도는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조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임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원명안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4-0840 / 이메일 : wma7259@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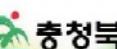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홈닥터



법무부



충청북도



SSN

III 칼럼 III

고독사에 사회적 돌봄 필요할 때다



박종분

산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들 역시 독거 중·장년의 특성인 경제적 어려움과 심장병, 당뇨, 알콜 의존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설 자리를 잃은 독거 중·장년이 제대로 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평균수명을 훨씬 앞질러 쓸쓸한 죽음을 맞은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단면을 보는 듯하여 쓸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인구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진작부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제도마련과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갖추어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와 함께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년 및 노인 1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40~50대 중·장년의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독거 중·장년 가구가 사회적 위험에 새롭게 노출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동 연구한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제자’ 자료에 의한 독거 중·장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저학력, 이혼이나 미혼인 경우가 많고, 도농복합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다. 사회적 안전에 대한 책임은 국가 및 사회, 가정 모두에 있다고 본다.

전반적인 생활환경에서는 노년 1인가구와 특성이 유사하여, 노인 1인가구 놓지않게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일부 건강상태나 주거환경에서는 노인 1인가구보다 더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장년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소득 불안정, 건강문제, 주거환경의 열악함 등으로 사회관계망이 끊겨 고립되는 중·장년층의 고독사는 이제 가까운 이웃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고독사한 기사가 신문지상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가족,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수일에서 수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북지역의 고독사 발생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느 한 동네에서만 2년 사이 6명의 독거 중·장년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야겠다는 마음 간절히 가져본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1인 가구 중·장년 고독사 예방 조례 및 복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독거중장년들을 위한 연구 및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듯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중·장년의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다. 사회적 안전에 대한 책임은 국가 및 사회, 가정 모두에 있다고 본다.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되어 살아가는 1인 중·장년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은 더 이상 당사자 개인과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1인 가구 중·장년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해 정책수립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국가·사회적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곧 명절이 다가온다. 요컨대 하루빨리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이웃이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야겠다는 마음 간절히 가져본다.



이 달의 법률상식



Q. 저는 어느 날 친구에게 빌린 대여금 2천만원을 친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친구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잘못 송금한 경우 수취인에 대해서 반

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에 빠른 연락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의 계좌로 들어간 돈은 잘못 입금된 돈이라고 할지라도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즉, 은행은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 착오 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자금을 돌려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수취인이 은행의 요청에 따라 반환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임의반환을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를 거부할 경우에는 수취인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잘못 보낸 계좌가 암류 중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계좌인 경우 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거나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따라서 만약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를 문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복지정보 제공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제19회 충북사회복지대회

- 일시 : 2018년 10월 12일(금) 11:00 ~ 16:00
- 장소 : 읍성인삼축제행사장(읍성군 금왕읍 응천서길 25)
- 내용 : 유공자축평, 윤리선언낭독, 퍼포먼스, 풍물보는운영 등
- 주관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읍성군사회복지협의회
- 후원 : 충청북도, 읍성군

- [아이들과미래재단] 2018년 하반기 CJ도너스캠프 교사 인성학교 참가자 모집
- 일정 : 2018년 11월 15일(목)~17일(토), 2박3일
 - 장소 : 현대대구타운비스타(경기도 양평군)
 - 대상 : CJ도너스캠프 기관회원(정회원/준회원)
 - 인원 : 250명
 - 신청기간 : 2018년 8월 30일(목)~9월 30일(일)
 - 신청방법 : CJ도너스캠프 지원프로그램
 - 선정발표 : 2018년 10월 11일(목)
 - 참고 : <http://www.kidsfuture.or.kr>

- [푸르메재단] 2018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 지원사업 안내(6차)
- 지원기간 : 2018년 11월 ~ 2019년 8월 (10개월)
 - 신청기간 : 2018년 9월 17일(월) ~ 10월 19일(금) / 이며일 접수
 - 지원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청소년)
 - 지원내용
 - 1. 지원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2.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 3. 지원기간: 최대 10개월
 - 4. 지원인원 : 35명 (신규 25명, 연속 10명) ※ 연속지원 대상: 2017년 하나금융나눔재단 재활치료비 지원 어린이
 - 신청 방법
 - 1.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2.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 3.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신

[KT&G복지재단] 청각장애인 후원사업 수리소리 마스터

- 신청대상 :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수급, 차상위, 일반저소득) 청각장애인
-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후원물을
- 지원절차
 1. 후원금 신청 및 서류접수 : 2018년 9월 11일(화)~10월 14일(일)
 2. 심사 및 선정 : 2018년 10월 16일(화)~10월 23일(화)
 3. 선정발표 : 2018년 10월 24일(수)
 4. 후원금지원 : 청각장애인 후원물을 구입비 지원
 5. 후원금 사용내역확인 : 결과보고서류 발송(1개월 이내) 인터뷰 진행(6개월 이후)
- 지원서류접수 :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폐스(02-6007-1459) 송부
 1. 저소득증명서류
 2.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4. 보장구처방전 및 견적서
 5. 청력검사결과자료
 6. 주민등록등본
 7. 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8. 기관 후원금 통장사본
 9. 재단 양식 정보공개동의서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이 신속하게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 지원내용 : 일선의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개보수비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접수기간 : 연중 상시접수 운영
 - 문의전화 : 02)8010-2563
 - 참고 : <http://www.asanfoundation.or.kr>
- [JS노총병원] 수술비 후원 사업
- 후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2종)
 2.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 후원내용
 1. 치료비후원(수술비, 검사비(수술 전후 검사))
 2. 공동 간병실 제공
 3. 치량지원원(거동불편환자)
 4. 재활치료지원
 - 접수방법
 - 팩스 또는 우편접수
 - 팩스: 032-516-9500
 - 주소: 인천시 서구 길주로 91 JS노총병원 지하1층 행정실 사회복지팀
 - 선정기준: 경제적, 의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 후 개별 통보
 - 신청기간: 연중
 - 문의사항 : 070-4912-9821

자원봉사자 모집

- ▶ 센터봉사
관리센터: 우리들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10.1 ~ 12.31
전화번호: 043-267-5835

- ▶ 장애인가정청소년학습지원사업 멘토모집
관리센터: 충북장애인재활협회
활동기간: 10.1 ~ 12.31
전화번호: 043-252-9720

- ▶ 이·미용봉사
관리센터: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
활동기간: 10.1 ~ 12.31
전화번호: 043-260-3536

- ▶ 아동학습지도
관리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0.1 ~ 12.31
전화번호: 043-855-1090

- ▶ 돌봄과 살림 사무봉사
관리센터: 청주YWCA
활동기간: 10.1 ~ 12.31
전화번호: 043-265-3700

- ▶ 인형극 봉사
관리센터: 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0.1 ~ 12.31
전화번호: 043-253-4493

- ▶ 재능·전문봉사
관리센터: 참좋은집
활동기간: 10.1 ~ 12.31
전화번호: 043-853-5313

- ▶ 공연봉사
관리센터: 대신노인요양원
활동기간: 10.1 ~ 12.31
전화번호: 043-266-0825
*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지역사회봉사단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우렁각시봉사단 “사랑 듬뿍 간식 나눠요”

독거어르신 간식 만들기 봉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우렁각시(단장 조경옥)는 지난 8월 23일 청주사랑나눔기초푸드뱅크 사무실에서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영양간식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우렁각시 조경옥 단장은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재능으로 독거 노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으며, 앞으로도 봉사에 열심히

임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위촉 관련 문의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pcwss@chol.com)을 통해 가능하다.

충청북도 인권작품 공모전

접수기간
2018. 10. 1(월) ~ 11. 9(금)
※ 접수마감 : 2018. 11. 9(금) 18:00 도착분 까지

홍보자작
충북도내 기주자 누구나
※ 개인 및 단체(5인 이내) 모두 충모 가능

공모분야
3개 부문(포스터, 사진,UCC)
※ 포스터, 사진 UCC는 이동 청소년부 / 말반부로 구분
'모두가 존중받는 안전한 복지, 만들기'
- 일상생활에 나타난 인권침해 처벌에 대한 인식 제고
- 인권에 대한 관심 확장 및 인권에서 개선
- 인권에 대한 모든 강수상 항상 및 인권증증 문화 확산

접수방법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wanted16@korea.kr)

수상작 발표
2018. 11. 28.(수)
※ 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 개별통지

시상내용
총 4,000천원 규모, 20점 시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www.chungbuk.go.kr 공고문 참조

도 홈페이지 ► 소통공장 ► 충북권민센터 ►
인권증증 ► 인권봉사 및 교육안내(5권 개시글)

문의 충청북도 인권센터
☎ 043-220-2727

2018. 10. 01 (월) ~ 11. 09 (금)

복/지/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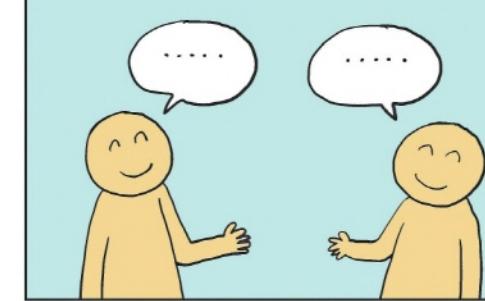
나눔

이창신 www.bokmani.com

음식은 서로 나누어야 제맛이고



대화도 서로 나눌 때 즐거운 법입니다.



을 추석 일방적으로 주지 않고 서로들 나누셨나요?